

중흥사는 태고불교의 상징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불광연구원 학술연찬회서 발표

대표적인 호국도량이었던 북한산 자락의 고양 중흥사(重興寺)는 18세기 초 북한산성 축성때까지만 해도 30여 칸에 불과하던 작은 사찰이었다. 1712년 북한산성 축성과 함께 중흥사는 수도방위의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136칸에 달하는 대규모 승영(僧營) 사찰로 확장됐다. 북한산성 안에서도 전략적 요지에 위치한 중흥사는 팔도도총섭을 겸한 승대장이 머물렀고, 산성의 유지관리와 승군 지휘사령부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대표적인 호국도량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중흥사 위상은 승병제도 폐지와 일제의 한반도 침탈로 인해 쇠락해졌다.

의병운동이 한창이던 1907년 일본군은 도적 소탕을 명분으로 중흥사에 헌병대를 주둔시키게 되면서, 외침을 막기 위한 호국도량 중흥사는 외세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치욕까지 당하게 됐다.

폐사된지 100여 년만에 복원을 시작해 4월 18일 대웅전 상량식을 앞둔 중흥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불광연구원(원장 지홍)은 3월 31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북한산성과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를 주제로 승군 수사찰 북한산 중흥사 복원기념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주제 발표 '북한산지를 통해 본 북한산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북한산성을 관리했던 북한산 여러 사찰들과 중흥사의 위상에 대해 고찰했다.

황 교수는 "북한산 불교는 백제 초기 시작됐으나, 사찰명이 확인되는 것은 삼국통일기 장의사가 최초이다"라고 소개했다.

장의사는 신라말 900년을 전후해 원종대사 찬유와 법인 국사 탄만이 구축계를 받았던 화엄종계 사찰로, 조선 중기까지 북한산의 중요사찰이었다.

황인규 교수는 "북한산 불교가 크게 부각된 것은 현종을 비롯한 고려 왕실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부터"라며 "거란 침입시에는 북한산 향림사를 태조 왕건의 재궁으로 삼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재광 전쟁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은 '수도방위와 북한산성의 전략적 · 지정학적 가치'에서 수도방위에 있어서 북한산성의 전략적 가치와 국방학적 관점에서 본 중흥사에 대해 발표했다.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주제발표 '북한산성의 축성과 관리에서 승군과 중흥사의 역할'을 통해 북한산성 축성에서 승군의 역할과 중흥사의 위상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조선 후기 불교계는 산성의

축성과 방어를 위한 의승군 제도로 인해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임진왜란처럼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의승군에 참여했던 사실을 조선 후기에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명제 교수는 "중흥사 복원은 국가에 의한 불교계 수탈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험난한 시대를 겪으며 불교계를 유지 · 계승한 과거사를 정확히 성찰하는 것은 오늘날 불교계의 자화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경미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소장은 '승영사찰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복원방향'을 주제로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고양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는 태고보우 스님을 통해 중흥사의 사격을 조명했다.



북한산 중흥사의 옛 모습. 현재 과거의 사격을 회복하기 위한 중창불사가 한창이다.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
태고보우 1341년부터 주석
유생과 불교 있는 가교 역할도
가능화는 '제일기념지' 역설

중흥사는 태고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위상을 지닌 도량이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중흥사의 중창불사에 태고보우 스님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김상영 교수는 "태고보우 스님은 1341년부터 중흥사 중창불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태고암을 신축하고 5년에 걸친 수행 기간을 보냈다. 보우 스님 입적 후 중흥사와 태고암에는 보월승공탑과 원종국사탑비가 세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흥사가 '조선불교 제일기념지(朝鮮佛子 第一紀念之地)'로서의 위상을 지닌 도량이라고 강조했다.

근대기 이후 한국불교 승단은 종파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조선불교조계종을 거쳐 오늘날의 대한불교조계종이 탄생할 수 있었다. 중흥사와 깊은 연관된 태고보우 스님은 한때 조계종 중추 위상을 갖고 있었고, 현재는 조계종 중흥조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영 교수는 "태고법통"은 조선 중기 이후 한국 선불교의 유일 범본이었다. 때문에 이능화 박사는 '중흥사를 조선불자들이 제일기념지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능화는 중흥사를 찾아 "힌구름 흠어들어

고 그림자 저만치 옮겨가니, 고요함이 태고 때와 같아라. 보우스님 여기 와서 시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줄줄이 늘어선 산들이 자손이 되었네"라는 시를 읊기도 했다.

김상영 교수는 중흥사가 북한산성의 수사(首寺)이자 조선시대 대표적인 진호·비보도량이었다는 특색도 설명했다. 보우 스님의 중흥사 중창과 주석은 스님이 주창했던 한양천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중흥사는 보우대에 이르러 진호·비보도량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이는 서경 중흥사가 수도 개성의 북방을 진호하는 도량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보우는 북한산 중흥사를 천도대상지인 남경의 북방을 진호하는 의미로 중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흥사는 호국도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찰이기도 했다. 또, 한양의 지식인들이 즐겨 찾던 독서·수학도량이었다.

김상영 교수는 "김시습 등이 중흥사를 찾아 수학했다"며 "이들의 문집에서 중흥사에 대한 비판글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중흥사는 유생과 불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탄허 스님 생애와 사상 조명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현대 불교학의 대장장 탄허 스님(1913~1983·사진)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와 공동으로 4월 27일 12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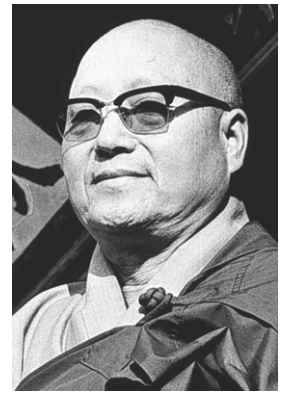
'오대산 화엄의 특징과 탄허의 원용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허거 스님의 축사, 월정사 회주 현해 스

님의 치사가 예정돼 있다.

학술발표 1부에서는 자연 스님(월정사 교무)이 '오대산 문수화엄 신앙의 특수성 고찰'을, 고영섭 교수(동국대)가 '탄허 태성의 한국불교사적 지위'를, 임상희 동국대 외래교수가 '탄허 태성의 화엄사상'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윤창화 대표(도서출판 민족사)가 '한암과 탄허의 同·異비교'를,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가 '탄허의 시대인식과 종교관 고찰'을, 김성철 교수(동국대)가 '탄허 스님의 도참설, 그 배경과 의의'를 주제발표한다.

한편, 이날 학술발표 후에는 한국불교학회 임시총회 및 제20대 회장선거가 치러



진다. 한국불교학회 김용표 회장은 "현대사회는 학문과 문화의 장벽이 무너져 통합되는 융·복합(회통) 시대이다. 이즈음 스님의 화엄철학과 원용관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의 정리만이 아닌, 미래 방향 제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번뇌-자비, 인심(人心)-도심(道心)

김근우 교수, 융합연구 학술세미나 '불교와 사상 의학의 만남'

동양의학은 인간 내면 즉, 마음을 중시한다. 불가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도가에서도 마음을 바탕으로 정신의학 체계를 형성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동국대 한의학연구소는 3월 31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세미나실에서 '불교와 사상의학의 만남'을 주제로 융합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근우 교수(동국대 분당병원 신경정신과)는 주제발표 '유·불·도 사상의 심신치유적 적용을 위한 심(心)의 연구'를 통해 마음과 심신치유의 관계를 조명했다.

한의학의 대표 경서인 <황제내경>의 사

상적 원류는 황노사상 등 도가에서 찾을 수 있다. 김근우 교수는 "'도도동원(醫道同源)'이라는 태생적 특징은 한의학이 도교와 같은 기원에서 유래했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불교와 한의학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중생의 가장 근본적인 고뇌의 해결을 위한 과제에 다 같이 접근하면서 그 고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궁극적 목적은 유사하다"고 말했다.

불교의학에서의 마음은 한의학과 사상 의학과 비교연구의 대상이 가능한 초기불교·유식에서의 마음의 개념으로 한정된다. 사상의학에서의 마음은 용어나 이론

등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김근우 교수는 불교의학과 사상의학, 한의학에서의 정신·심리 활동적인 측면을 비교·고찰했다.

김 교수는 "불교의학에서는 마음에 대한 유형적 인식론의 폭이 넓지만, 사상의학과 한의학에서는 신체를 구성하는 각 인자로 범위가 한정된다"고 말했다.

김근우 교수는 "불교의학은 마음의 기능적인 면을 '의식' '말라시' '아뢰야시'으로 사상의학은 '심욕(心欲)'으로, 한의학은 '이(理)' '신(神)'으로 설명했다"며 "마음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학의 '신(神)'이 가장 포괄적이고 불교의학의 '아뢰야시' 이 사고와 의식에서 그 표현이 깊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불교의학·사상의학에서 마음의 양극은 각각 '번뇌'와 '자비정신',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경주캠, 창의적 인재 양성프로그램

'불교명상과 심신의학' 등 융복합 교양교과목 개발, 운영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교양교육원(원장 박상진)을 중심으로 학제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올해 1·2학기 동안 15개의 융복합 교양교과목을 개설했다.

융복합 교과목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융합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근거를 밝히는 교과목. 또한 한 가지 학제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이나 그 학문을 융합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

1학기 실시되는 융복합 교과목은 '불교

명상과 심신의학' '과학, 우리시대의 교양' '녹색 아이디어 창출론'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등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양교육원은 지난해 교양교육개편위원회 운영을 통해 12차례에 걸친 회의와 워크숍, 전체 교수님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융복합 교과목 개발 기준과 구성 지침 등을 연구했다.

박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양교육원장은 "융복합 교육과정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수호 인력 양성코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

동국대 문화재수호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국가공인 문화재단청기술자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김항목)에 개설된 이 과정은 4월 7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7월 까지 16주간 진행된다. 강좌는 단청기술자 양성, 성보문화재 복구·보존 전문가 양성, 실질적인 불교 문화 계승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강좌는 >한국사 >한국건축사 >문화재관련법령 >단청이론 >색채론 >도화 >도화실습 및 단청체색실습 >현장 강의 등이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제 전문도량

현오 스님 퇴마사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제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각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o!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